

새마을문고의 법적 위상 실태 분석: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를 중심으로*

Actual Condition Analysis on Legal Status of Saemaul Mini-Library: Focused on Saemaul Mini-Library in Busan Metropolitan City

이종문(Jong-Moon Lee)**

초 록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법적 위상과 관련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 지역의 새마을문고는 154개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현행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건물면적 0%(0개), 열람석 1%(1개), 도서관자료 40%(59개), 연간증서 31%(45개)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면적 37%(58개), 열람석 66%(101개), 도서관자료 73%(112개)로 나타났다. 주간 5회 이상 개방하는 문고는 50%(77개), 1회 개관 시간이 5시간 이상인 문고는 52%(80개)로 나타났다. 전문직(사서)을 상근으로 배치한 문고는 1%(2개)에 불과하고, 99%(152개)가 비전문직(비사서)을 통해 문고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 평균 소요예산이 1,000만원 이하인 문고는 81%(127개), 도서관자료 구입예산이 평균 500만원 이하인 문고는 74%(114개)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문고가 법적 요건에 미달하였으며,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roblem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based on the legal requirements among Saemaul mini-librar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are like these. There were 154 Saemaul mini-libraries. Of them, the rate of Small-libraries which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a municipal library to the Library Act was 0%(0) in part of building floor space, 1%(1) in part of a reading room, 40%(59) in part of the data in a library and 31%(45) in the number of books to be supplemented per year. Mini-library which satisfied as the requirements for a small-scale public library was 37%(58) in part of the floor space, 66%(101) in part of a reading room, and 73%(112) in part of data in a library. 50%(77) of the mini-library was open more than 5 days per week. 52% (80) Mini-libraries was open for more than 5 hours per day. mini-library with permanent professionals(librarians) was only 1%(2). Mini-libraries of 99%(152) were non-professional workers(no librarians). For the average budget per year, 81%(127) spent less than 10 million won. 5%(5) received government subsidies. The mini-library of 74%(114) spent less than 5 million won on average for purchasing materials. Most of mini-libraries didn't meet the requirements of small-scale libraries to be private libraries or public libraries. It was also found that mini-libraries had various features on the location.

키워드: 문고, 새마을문고, 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mini-library, saemaul mini-library, library, public library, small library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mlee@ks.ac.kr)

■ 논문접수일자: 2011년 8월 10일 ■ 최종심사일자: 2011년 8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9월 12일
■ 정보관리학회지, 28(3): 257-273, 2011.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3.257]

1. 서론

문고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려시대 도서관의 구실을 해왔던 왕실문고, 관영문고, 교육문고, 사찰문고, 개인문고가 그것이다(임지혜 2003). 하지만 이들 문고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문고와는 개념이 다르다.

우리사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고운동은 해방 이전(以前)의 책보내기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식민지와 한일합방을 거치는 과정에서 애국계몽과 문맹퇴치가 동기가 되어 책과 접하기 힘든 농어촌에 헌책을 수집하여 보내는 이른바 책보내기 운동이 그것이다(김세훈 등 2006). 그후 엄대섭에 의해 사립 무료 도서관이 운영되면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문고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엄대섭(1966)은 “1951년 경남 울산군에서 개인장서 3천여 권을 토대로 사립 무료 도서관을 운영하며, 군내 마을을 대상으로 탄환상자를 이용한 순회문고를 운영하던 중 1960년 12월 마을문고를 창안하였다.” 이후 “1961년 2월 마을문고보급회를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문고운동을 본격 추진”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1999)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된 마을문고운동은 “1963년에는 문교부로부터 사회교육정책으로 채택되어 국고를 지원을 받게 되었고, 1965년 내무부에 의해 시·군 예산으로 마을문고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1975년 새마을 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 새마을문고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는 동안 한 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법적 정체성과 지위가 확보되었으나, 동 법이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 입법되면서 도서관적 정체성과 법적 지위에 논란이 있는가 하면, 새마을문고중앙회가 독자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예산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문고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보면, 전국적 관점이나 여타의 지역적 관점에서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 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지역 전체 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위상과 관련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고의 도서관적 정체성과 도서관화를 위한 법적 요건을 관련 이론과 법규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부산광역시 지역의 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법적 도서관 요건과 도서관적 위상과 관련한 여타로 구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문제를 파악하여 도서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문고와 그 정체성

새마을문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고와 도서관의 본질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영어의 'library'라는 용어를 사전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영어의 'library'는 각종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우리말의 '도서관'과 '문

고'는 영어로는 동일하게 'library'로 번역되고 있다. 관련 연구를 보더라도 남영준 등(2006)이 '공공도서관 운영단위 용어비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어로는 'Village Library'로, 우리말로는 '문고'로 표기되고 있다. 물론 Village Library가 농촌 문고에 치중한 면이 있다하여 Mini-Library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Library를 '문고'로 이해하는 관점은 동일하다. 둘째 한자(漢字)를 통해 의미를 보면, '文庫'는 "서적, 문서 따위를 담아 두는 그릇 또는 서고(도서관에서 책을 넣어 둔 방)"를 의미하는 것으로, '圖書館'은 "도서·기록기타의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규모면에서 차이는 있으나 의미론적으로 동일성을 가진 시설이라는 말이다.

셋째 관련 법규와 기관(단체)의 견해를 보면, ① 지금은 용도 폐기된 1994년 3월에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제2조의 2에서 문고를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목적과 기능적면에서 문고를 도서관과 동일 성격의 시설로 보았다. ② 현행 도서관법은 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관적 시설을 '도서관'이라는 용어로 포괄(包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규모를 기준으로 여러 유형의 법적 요건을 정하여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도서관 여부(與否)와 유형을 구분 짓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건과 동법 제31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과 제2조의 4에서 사립 공공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건을 정한 것과 시설과 도서관자료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경우 법적 위상을 갖도록 한것이 그것이다. 남영준 등(2006)이 "현재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부르는 도서관은 규모 면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일 뿐 역할은 공공도서관과 동일하다."고 한 것도, "광의의 해석으로는 문고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공공도서관 시설로서 도서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넷째 관련 기관(단체)의 견해를 보면, ① 새마을운동중앙회(1999)는 새마을문고운동의 목적을 "독서생활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 교양과 정서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주민과 직장인들의 직업적 기능, 문화적 소양, 사회적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사단법인 새마을문고중앙회(정관 제1조)는 "독서를 통한 지식 보급으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도서관적 관점에서 문고를 이해하고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도 2011년 도서관 및 독서정책대국민 업무보고에서(2011), 공공도서관이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형·단독시설 위주로 도서관이 건립되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의 하나로 기존 노후 '문고'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는 정책구상을 밝히는 등 문고를 도서관적 시설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앞의 모든 견해에서 문고를 규모가 작은도서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2.2 문고의 도서관화를 위한 요건

문고의 도서관화를 위한 요건을 법적 요건과 도서관적 위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도서관법상의 요건과 관련하여,¹⁾ 도서관법은 제5조와 동시행령 제3조 별표 1 '1. 공공도서관'의 "나"목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준을, "다"목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① "나"목의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준으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 2만명 미만 지역의 도서관에 적용하는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② "다"목에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준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면적, 열람석, 도서관자료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문고가 앞에서 살펴본 요건을 갖추어 도서관법에 의해 등록되는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 혹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

위를 가질 수 있다. 또 이러한 요건을 갖출에 있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적 위상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새마을문고가 도서관적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일정 수의 전문직(사서)을 배치해야 하고, 문고를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전문직(사서)과 관련하여, 도서관법은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사서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는 사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만 보면 <표 3>과 같이 사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사서직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다. 문제는 '사서가 누구인가?'이다. 사서(司書)는 도서관 시설 및 설비, 자료의 수집 및 조직, 서비스 및 참고

<표 1> 사립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시설 및 자료 기준

이용자수(명)	시설		자료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 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표 2>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기준

구분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9.9825평) 이상(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열람석	6석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도서관법(법률 제10558호)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22625호).
<<http://www.law.go.kr/main.html>>.

〈표 3〉 사서직원 배치기준

구 분	기 준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등 제외)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사서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봉사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도서관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참고봉사 하는 일 등을 담당하는 도서관의 핵심 전문직이다. 그러므로 법에서 사서직원을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그 환경의 열악성에 대한 배려 차원이지만 사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의 배려를 핑계 삼아 사서 배치를 회피하는 것은 법정신에 어긋난 것이라는 말이다. ② 예산과 관련하여, 여타의 도서관은 물론 새마을문고가 견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관련법에 의한 지원과 민간으로부터의 후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은 제3조의 1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제5조의 2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이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은 제3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은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

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새마을문고는 현 상태 또는 법에 의해 도서관으로 등록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여 이를 재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2.3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문고를 포함한 문고에 대한 선행 연구를 문고운동의 관점, 문고 운영 실태의 관점, 작은도서관의 관점, 문고지도자 역할의 관점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문고운동의 관점에서, 엄대섭(1963)은 “농어촌의 독서운동이야말로 주민들을 깨우치고 스스로 돕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라 믿어지는 것이다.”며, 자신이 제안한 마을문고의 설립과 활용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이용남(2000)은 우리나라 마을문고 운동의 형성 배경에서부터 1967년까지의 초기 전개과정과 창설 이래 1980년까지 문고운동 추진의 기본전략과 행태를 분석하였다. 이용남(2002)과 운영대

(1984)는 공공도서관과 새마을운동 측면에서 새마을문고를 고찰하고,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새마을문고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문고 운영실태의 관점에서, 전재봉(1984)은 새마을문고의 구성요소를 넓은 의미에서 시설, 자료, 문고회로 보고, 각 요소에 세 가지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모두 9가지 사항(문고 수, 문고설치 장소, 비품, 장서 수, 대출실적, 도서보유 규모, 회원 수, 문고회장의 직책, 문고활동실태)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김영신(2002)은 운영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동사무소에 운영되고 있는 문고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현장관찰을 통해 장서현황과 이용 상황을, 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용자 행태를 조사하였다. 정병창과 이진영(1994)은 서울시 새마을이동문고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승과 류병장(2008)은 경기도 안성시의 공공도서관 입지여건과 공공도서관 및 문고 확충 과정,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관점에서 김세훈 등(2006)은 작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직·간접적인 연계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남영준 등(2006)은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원리, 국내외 현황, 협력 네트워크, 모델과 운영 방안,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부터 황준호(2006)의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참고자료: 건축도면”을 시작으로 ‘작은도서관 총서’ 총 9권을 발행하는 등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였다. 박상희(2007)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문고에 관한 개념과 역할을 고찰하고, 부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문고 중 사례로 선정된 4곳의 현황(시설, 이용, 장서, 인력)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재희(2008)는 국내외 작은도서관 사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민관갈등의 이해관계자와 원인, 갈등내용을 분석하여 협력요소를 제시하였다. 박미라와 이응봉(2010)은 전국의 사례에 비추어 1998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전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홍렬(2010)은 전라북도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송이(2010)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규정과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와 요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넷째 문고지도자 역할의 관점에서 이만수(2006)는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문고지도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여러 관련 연구가 있었으나 생략한다.

3. 새마을문고 실태 분석

3.1 조사내용 및 기준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역 154개 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기준은 크게 법적 도서관 요건과 도서관적 위상과 관련한 여타의 실태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조사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새마을문고 운영실태 조사표

구분	조사내용
새마을문고 현황	- 새마을문고 설치 현황
법적 도서관 요건 관련 실태	- 새마을문고 건물면적 실태 - 새마을문고 열람석 실태 - 새마을문고 도서관자료 실태 - 새마을문고 연간증서 실태
도서관적 위상 관련 여타 실태	- 새마을문고 건물소유 실태 - 새마을문고 개관 실태 - 새마을문고 인력 활용 실태 - 새마을문고 예산 실태

3.2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154개 새마을문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화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데이터 수집은 1차로 2011년 6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이루어졌으며, 2차로 2011년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추가로 보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는 전체 새마을문고 154개이며, 전체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문고도 있었다).

3.3 분석 결과

3.3.1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 현황

부산광역시 지역의 새마을문고 현황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 지역의 전체 새마을문고는 154개로 파악되었다. 새마을문고만을 기준으로 문고 당 평균 서비스 대상 인구는 통계청이 조사한 2010년 부산광역시 인구(3,393,191명)를 기준으로 하여 22,034명으로 나타났다.²⁾ 인구대비 서비스 대상 인구가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5,251명), 강서구(5,801명), 영도구(12,619명), 연제구(16,877명), 수영구(16,908명), 동래구(20,430명), 금정구(20,477명), 남구(22,416명), 해운대구(22,658명) 순으로 나타났다. 동구의 경우에는 93,256명으로 1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3.3.2 법적 도서관 요건 관련 실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건(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열람석 60석, 기본 장서 3,000권, 연간증서 300권)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건(건물면적 33제곱미터, 열람석 6석, 도서관자료 1천권)을 기준으로 법적 요건 충족 실태를 분석하였다.

2) 부산 도서관 법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지역에는 새마을문고 이외에도 29개 공공도서관(분관 포함)과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가진 30여개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따라서 새마을문고를 포함한 전체 공공도서관 성격을 갖는 도서관 수는 213여 개로 추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보면 도서관 당 서비스 대상 인구는 15,930명 정도로 추정된다.

〈표 5〉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 현황

구 분	인구 수(명)	문고 수(개)	문고 당 서비스 인구(명)
중구	47,260	9	5,251
강서구	52,207	9	5,801
영도구	138,808	11	12,619
연제구	202,523	12	16,877
수영구	169,081	10	16,908
동래구	265,596	13	20,430
금정구	245,725	12	20,477
남구	291,406	13	22,416
해운대구	407,851	18	22,658
북구	301,296	13	23,177
서구	116,214	5	23,243
부산진구	378,965	15	25,264
기장군	93,106	3	31,035
사상구	249,053	8	31,132
동구	93,256	1	93,256
사하구	340,844	2	170,422
계	3,393,191	154	평균 22,034

1) 새마을문고의 건물면적 실태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들이 문고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새마을문고의 문고시설 건물면적 실태

구 분(m ²)	문고 수(%)
33 이하	96(63)
33~66	34(22)
67~134	19(12)
135~264	5(3)
계	154(100)

전체 154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3제곱미터 이하 63%(96개), 33제곱미터~66제곱미터 22%(34개), 67제곱미터~134제곱미터 12%(19개), 135제곱미터~264제곱미터 3%(5개)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기준에 적용해 보면, 사립 공공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한 곳도 없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건을 갖춘 문고는 전체 154개 중 37%(58개)로 파악되어 대부분의 문고가 작은도서관 요건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표 6〉의 새마을문고 건물면적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분석한 결과, 설치된 모든 문고가 작은도서관 요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사하구, 수영구로 파악되었다. 여타는 강서구 78%(9개 중 7개), 해운대구 72%(18개 중 13개), 기장군 67%(3개 중 2개), 남구 62%(13개 중 8개), 서구 60%(5개 중 3개), 북구 54%(13개 중 7개), 동래구 8%(13개 중 1개)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고가 작은도서관 요건에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사

〈표 7〉 기초자치단체별 건물면적(단위: 제곱미터) 실태

구 분	건물면적(%)				
	33 이하	33-66	67-134	135-264	계
중구	9(100)	0(0)	0(0)	0(0)	9(100)
서구	2(40)	3(60)	0(0)	0(0)	5(100)
동구	0(0)	1(100)	0(0)	0(0)	1(100)
영도구	11(100)	0(0)	0(0)	0(0)	11(100)
부산진구	15(100)	0(0)	0(0)	0(0)	15(100)
동래구	12(92)	1(8)	0(0)	0(0)	13(100)
남구	5(38)	6(46)	1(8)	1(8)	13(100)
북구	6(46)	7(54)	0(0)	0(0)	13(100)
해운대구	5(28)	3(17)	8(44)	2(11)	18(100)
사하구	0(0)	1(50)	1(50)	0(0)	2(100)
금정구	12(100)	0(0)	0(0)	0(0)	12(100)
강서구	2(22)	7(78)	0(0)	0(0)	9(100)
연제구	8(67)	0(0)	3(25)	1(8)	12(100)
수영구	0(0)	3(30)	6(60)	1(10)	10(100)
사상구	8(100)	0(0)	0(0)	0(0)	8(100)
기장군	1(33)	2(67)	0(0)	0(0)	3(100)

상구로 파악되었다. 기초단체 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2) 새마을문고의 열람석 실태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들이 보유한 열람석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새마을문고의 열람석 보유 실태

구 분	문고 수(%)
6석 이하	53(34)
6석~20석	79(51)
21석~30석	12(8)
31석~40석	5(3)
41석~50석	4(3)
51석~60석	1(1)
60석 이상	0(0)
계	154(100)

전체 154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6석~20석 51%(79개), 6석 이하 34%(53개), 21석~30석 8%(12개), 31석~40석과 41석~50석이 각각 3%(각각 5개와 4개), 51석~60석 1%(1개)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에 적용해 보면, 사립 공공도서관 요건(60석)을 갖춘 문고는 1%(1개)에 불과했으며, 작은도서관 요건(6석)을 갖춘 문고는 66%(101개)로 나타났다.

3) 새마을문고의 도서관자료 및 연간증서 실태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의 도서관자료 및 연간증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9〉와 같다.

전체 154개를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0권~2,999권 17%(27개), 1,000권~1,999권 16%(26개), 300권~499권

〈표 9〉 새마을문고의 도서관자료 및 연간증서 실태

구분	문고 수(%)	
	보유자료 수	연간증서 수
300권 이하	4(3)	100(69)
300권~ 499권	22(14)	29(20)
500권~ 999권	16(10)	6(4)
1,000권~1,999권	26(16)	10(7)
2,000권~2,999권	27(17)	0(0)
3,000권~3,999권	12(8)	0(0)
4,000권~4,999권	6(4)	0(0)
5,000권~5,999권	9(6)	0(0)
6,000권~6,999권	12(8)	0(0)
7,000권~7,999권	7(5)	0(0)
8,000권~8,999권	3(2)	0(0)
9,000권~9,999권	3(2)	0(0)
10,000권 이상	7(5)	0(0)
계	154(100)	145(100)

14%(22개), 500권~999권 10%(16개), 3,000권~3,999권과 6,000권~6,999권이 각각 8%(각각 12개)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에 적용해 보면, 사립 공공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40%(59개)로, 작은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73%(112개)로 파악되었다. 상당 수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체 154개 중 조사에 응한 145개를 대상으로 연간증서 수를 분석한 결과, 300권 이하 69%(100개), 300권~499권 20%(29개), 1,000권~9,999권 7%(10개), 500권~999권 4%(6개)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에 적용해 보면, 응답 문고 중 31%(45개)가 사립 공공도서관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다(작은도서관은 연간증서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다).

새마을문고의 도서관자료 보유실태를 기초자치단체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건의 경우, 설치된 모든 문고가 요건을 갖춘(100%)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북구, 해운대구로 나타났다. 여타는 연제구 67%(8개), 남구 54%(7개), 동래구 46%(6개), 영도구 36%(4개), 서구 20%(1개), 중구 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고가 요건 미달인 기초자치단체는 부산진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 요건의 경우, 설치된 모든 문고가 요건을 갖춘 기초 단체는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기장군이었으며, 여타는 남구 92%(12개), 영도구 91%(10개), 강서구 89%(8개), 사하구 66%(8개) 순이었다. 부산진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는 요건을 갖춘 문고가 하나도 없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기초자치단체별 도서관자료 보유 실태

구 분	도서관자료 수(%)													계
	300 이하	300~499	500~999	1000~1999	2001~2999	3000~3999	4000~4999	5000~5999	6000~6999	7000~7999	8000~8999	9000~9999	10000 이상	
중 구	0(0)	0(0)	0(0)	1(11)	7(78)	1(11)	0(0)	0(0)	0(0)	0(0)	0(0)	0(0)	0(0)	9(100)
서 구	0(0)	0(0)	0(0)	0(0)	4(80)	1(20)	0(0)	0(0)	0(0)	0(0)	0(0)	0(0)	0(0)	5(100)
동 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00)	1(100)
영도구	0(0)	0(0)	1(9)	4(37)	2(18)	3(27)	1(9)	0(0)	0(0)	0(0)	0(0)	0(0)	0(0)	11(100)
부산진구	0(0)	15(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100)
동래구	0(0)	0(0)	0(0)	4(31)	3(23)	1(8)	0(0)	2(15)	0(0)	3(23)	0(0)	0(0)	0(0)	13(100)
남 구	0(0)	0(0)	1(8)	5(38)	0(0)	0(0)	2(15)	1(8)	3(23)	0(0)	1(8)	0(0)	0(0)	13(100)
북 구	0(0)	0(0)	0(0)	0(0)	0(0)	0(0)	2(15)	1(8)	5(38)	4(31)	0(0)	0(0)	1(8)	13(100)
해운대구	0(0)	0(0)	0(0)	0(0)	0(0)	3(17)	1(6)	3(16)	4(22)	0(0)	1(6)	2(11)	4(22)	18(100)
사하구	2(17)	0(0)	2(17)	1(8)	7(58)	0(0)	0(0)	0(0)	0(0)	0(0)	0(0)	0(0)	0(0)	12(100)
금정구	2(17)	7(58)	3(2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100)
강서구	0(0)	0(0)	1(11)	8(89)	0(0)	0(0)	0(0)	0(0)	0(0)	0(0)	0(0)	0(0)	0(0)	9(100)
연제구	0(0)	0(0)	0(0)	0(0)	4(33)	3(25)	0(0)	2(17)	0(0)	0(0)	1(8)	1(8)	1(8)	12(100)
수영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상구	0(0)	0(0)	8(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8(100)
기장군	0(0)	0(0)	0(0)	3(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00)

3.3.3 도서관적 위상 관련 여타 실태

1) 새마을문고 건물 소유 실태
 부산광역시 소재 새마을문고들이 문고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형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1〉과 같다.
 전체 154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무상임대 사용 91%(140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유상임대 사용 6%(10개), 민간 소유 건물 무상임대 사용 2%(3개), 민간소유 건물 유상임대 사용 1%(1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새마을문고가 관련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민자치센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새마을문고의 문고시설(건물) 소유실태

구 분	문고수(%)
국가 소유 건물 무상임대 사용	0(0)
국가 소유 건물 유상임대 사용	0(0)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무상임대 사용	140(91)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유상임대 사용	10(6)
새마을문고 소유 건물 사용	0(0)
민간 소유 건물 무상임대 사용	3(2)
민간 소유 건물 유상임대 사용	1(1)
계	154(100)

2) 새마을문고 개관 실태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들의 주간 개관 횟수와 개관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2>와 같다.

전체 154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간 개관 횟수는 7회(주간 매일) 개관하는 문고는 하나도 없었으며, 5회 50%(77개), 2회와 6회 각각 12%(19개와 18개), 4회 10%(15개), 3회 9%(14개), 1회 7%(11개) 순으로 나타났다. 개관 시 평균 개관 시간은 5시간 이상 52%(80개), 3시간~5시간 32%(50개), 3시간 이하 16%(24개) 순으로 나타났다. 주간 개관 횟수 별로 5시간 이상 개관하는 문고가 어느 정도 인지를 분석한 결과, 주간 6회 개관문고는 83%(15개), 4회 개관문고는 67%(10개), 5회 개관문고는 60%(46개), 1회 개관문고는 45%(5개), 2회 개관문고는 21%(4개)가 5시간 이상 개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간 개관 횟수가 높을수록 개관시간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를 분석한 결과, 주간 6회 개관문고는 83%(15개), 4회 개관문고는 67%(10개), 5회 개관문고는 60%(46개), 1회 개관문고는 45%(5개), 2회 개관문고는 21%(4개)가 5시간 이상 개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간 개관 횟수가 높을수록 개관시간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새마을문고의 운영 인력 활용 실태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들의 운영 인력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3>과 같다.

전체 154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문직(사서)을 상근으로 배치하고 있는 문고는 1%

<표 12> 새마을문고의 주간 개관 횟수 및 개관 시간 실태

주간 개관 횟수(%)		개관 시간(%)			
구분	문고 수	3시간 이하(%)	3시간~5시간	5시간 이상	계
1회	11(7)	0(0)	6(55)	5(45)	11(100)
2회	19(12)	12(63)	3(16)	4(21)	19(100)
3회	14(9)	7(50)	7(50)	0(0)	14(100)
4회	15(10)	3(20)	2(13)	10(67)	15(100)
5회	77(50)	1(1)	30(39)	46(60)	77(100)
6회	18(12)	1(6)	2(11)	15(83)	18(100)
7회	0(0)	0(0)	0(0)	0(0)	0(0)
계	154(100)	24(16)	50(32)	80(52)	154(100)

<표 13> 새마을문고 운영 인력 활용 실태

구분	문고 수(%)		
	전문직(사서)	비전문직(비사서)	계
상근 정규직원	2(50)	2(50)	4(100)
상근 비정규직원	0(0)	2(100)	2(100)
상근 문고 운영회원	0(0)	14(100)	14(100)
비상근 문고 운영회원(파트타임 근무)	0(0)	88(100)	88(100)
상근 자원봉사자	0(0)	20(100)	20(100)
비상근 자원봉사자(파트타임 근무)	0(0)	26(100)	26(100)
계	2(1)	152(99)	154(100)

(2개)에 불과하였고, 99%(152개)가 비전문직(비사서)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전문직(비사서) 배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상근 문고 운영회원(파트타임 근무) 58%(88개), 비상근 자원봉사자(파트타임 근무) 17%(26개), 상근 자원봉사자 13%(20개), 상근 문고 운영회원 9%(14개), 상근 정규직원과 상근 비정규직원이 각각 1%(각각 2개) 순으로 나타났다. 1개 문고를 제외한 모든 문고가 비전문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새마을문고의 예산 실태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의 지난 3년간 연간 평균 소요예산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지난 3년간의 연간 평균 소요예산

구 분	문고 수(%)
1,000만원 이하	125(81)
1,000만원~1,999만원	21(14)
2,000만원~2,999만원	5(3)
3,000만원~3,999만원	0(0)
4,000만원~4,999만원	0(0)
5,000만원 이상	3(2)
계	154(100)

전체 154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이하 81%(127개), 1,000만원~1,999만원 14%(21개), 2,000만원~2,999만원 3%(5개), 5,000만원 이상 2%(3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고가 연간 1,000만원 이하의 빈약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들이 지난 3년간 국고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연간 평균 예산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5>와 같다.

전체 154개 응답 문고 11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고지원을 받은 도서관은 5%(5개)에 불과한 반면, 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문고는 95%(106개)로 높게 나타났다. 국고지원을 받은 문고의 지원 금액은 60%(3개)가 500만원~999만원을, 40%(2개)가 5,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문고는 58%(61개)가 500만원 이하를, 36%(38개)가 500만원~999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원 금액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의 지난 3년간 연간 자료(단행본) 구입 평균 예산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6>과 같다.

<표 15> 새마을문고의 지난 3년간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실태

구 분	문고 수(%)		
	국고지원예산	자치단체지원예산	계
500만원 이하	0(0)	61(100)	61(100)
500만원~999만원	3(7)	38(93)	41(100)
1,000만원~2,999만원	0(0)	6(100)	6(100)
3,000만원~4,999만원	0(0)	0(0)	0(0)
5,000만원 이상	2(67)	1(33)	3(100)
계	5(5)	106(95)	111(100)

〈표 16〉 새마을문고의 지난 3년간 연간 자료(단행본) 구입 평균 예산

구 분	문고 수(%)
500만원 이하	114(74)
500만원~999만원	22(14)
1,000만원 이상	18(12)
계	154(100)

전체 154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하 74%(114개), 500만원-999만원 14%(22개), 1,000만원 이상 12%(18개)로 나타나, 대부분의 문고가 자료구입에 500만원 이하의 빈약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고의 도서관적 정체성과 도서관화를 위한 법적 도서관 요건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광역시 지역의 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법적 도서관요건과 도서관적 위상과 관련한 여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새마을문고를 포함한 '문고'는 용어의 개념이나 관련 법적 규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여타의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은도서관적 시설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 혹은 작은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 문고를 분석한 결과, 첫째 부산광역시 지역의 새마을문고는 154개로 파악되었다. 새마을문고만을 기

준으로 전체 인구대비 문고 당 평균 서비스대상 인구는 22,034명으로 파악되었다(부산시 전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개념의 여타 도서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5,930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둘째 법적 도서관 요건과 관련하여, ① 건물면적의 경우,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요건(264제곱미터)을 갖추고 있는 문고는 전체 154개 중 한 곳도 없었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건(33제곱미터)을 갖추고 있는 문고는 전체 154개 중 37%(58개)로 파악되었다. 자치단체별로는 편차가 많았다. ② 열람석의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건(60석)을 갖추고 있는 문고는 전체 154개 중 1%(1개)에 불과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건(6석)을 갖추고 있는 문고는 전체 154개 중 66%(101개)로 파악되었다. ③ 도서관자료의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건(3,000권)을 갖추고 있는 문고는 전체 154개 중 40%(59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건(1,000권)을 갖추고 있는 문고는 73%(112개)로 파악되었으나, 10,000권 이상 도서관자료를 보유한 문고는 5%(7개)에 불과하였다. ④ 도서관자료의 연간증서의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연간증서 요건(300권)을 갖추고 있는 문고는 응답 145개 문고 중 31%(45개)로 파악되었다.

셋째 도서관적 위상과 관련한 여타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① 문고건물 사용실태의 경우, 전체 154개 문고 중 91%(140개)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유상 임대 6%(10개), 민간 소유 건물 무상 임대 2%(3개), 민간 소유 건물 유상 임대 1%(1개) 순이었다. ② 주간 문고 개관 횟수 및 개관 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간 개관 횟수의 경우 1주간 7회(주간 매일) 개관하는 문고는 하나도 없었으며, 주간 5회 50%(77개), 2회와 6회 각각 12%(19개와 18개), 4회 10%(15개), 3회 9%(14개), 1회 7%(11개) 순으로 나타났다. 개관 시 평균 개관 시간은 5시간 이상 52%(80개), 3시간~5시간 32%(50개), 3시간 이하 16%(24개) 순으로 나타났다. ③ 문고의 인력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사서)을 상근으로 배치하고 있는 문고는 1%(2개)에 불과하였고, 전체의 99%(152개)가 비전문직(비사서)을 통해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④ 예산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의 연간 평균 소요예산은 1,000만원 이하 81%(127개), 1,000만원~1,999만원 14%(21개), 2,000만원~2,999만원 3%(5개), 5,000만원 이상 2%(3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고가 연간 1,000만원 이하의 빈약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국고지원을 받은 도서관은 5%(5개)에 불과한 반면, 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문고는 95%(106개)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연간 자료(단행본) 구입 평균 예산은 500만원 이하 74%(114개), 500만원~999만원 14%(22개), 1,000만원 이상 12%(18개)로 나타나, 대부분의 문고가 자료구입에 500만원

이하의 빈약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첫째 법적 도서관화 요건과 관련하여 ① 서비스대상 인구 밀도가 문고와 여타의 공공도서관적 시설을 포함해도 15,930명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문고가 91%(140개)에 달하고 있음에도 사립 공공도서관의 건물면적 요건을 갖춘 문고가 한 곳도 없는 것, 최소 기준인 작은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가 37%(58개)에 불과한 것은 문제다. ②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대상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10,000원 이상 도서관자료를 보유한 문고가 5%(7개)에 불과한 것은 문제다. ③ 최소 37%의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들 문고들이 법적 위상을 갖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④ 주요 요건 분석에서 기초단체간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도서관적 위상 관련 여타의 실태와 관련하여, ① 문고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간 매일 개관되어야 함에도 매일 개관하는 도서관이 한 곳도 없는 것은 문제다. 또한 개관 시 평균 개관 시간이 5시간 이상인 문고가 52%(80개)에 불과한 것은 문제다. ② 문고가 공공도서관적 기능을 위해서는 전문직(사서)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전문직(사서)을 상근으로 배치하고 있는 문고가 1%(2개)에 불과하고, 99%(152개)가 비전문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③ 지난 3년간의 연간 평균 소요예산이 1,000만원 이하

인 문고가 88%(136개)에 달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로 미흡한 것은 문제다.

앞에서 파악한 문제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자치단체가 문고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자신의 시설을 관련법을 근거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문고가 최소한 작은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통해 시설(건물면적, 열람석 등)과 예산(도서관자료 구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조사 결과 최소한 37%(58

개)가 작은도서관에 해당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해당하는 문고들은 법적 도서관으로 등록하여 관련법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사서)을 배치하여 기본적으로 매일 8시간 이상은 개관(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기준)해야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보수와 지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문직(사서)을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태승, 류병장. 2008. 문고를 이용한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안성시 문고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38: 1-18.
- 김세훈 외. 2006.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 방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영신. 2002. 봉사거점으로서 동사무소문고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5-24.
- 김홍렬. 2010.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와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77-98.
- 남영준 외. 2006. 『작은도서관(문고 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네이버 사전 홈페이지. [online]. [인용 2011.6.20]. <<http://dic.naver.com/>>.
- 박미라, 이응봉. 2010.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시를 중심으로.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2010년 8월 20일.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 박상희. 2007. 『주민자치센터 문고의 현 단계와 발전 방안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박송이. 2010.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새마을운동중앙회. 1999. 『한국의 새마을운동』. 서울: 새마을운동중앙회. [online]. [인용 2011.6.22]. <[http://saemaul.com/center/www/caups/down/issue/새마을운동\(국문\).pdf](http://saemaul.com/center/www/caups/down/issue/새마을운동(국문).pdf)>.

- 엄대섭. 1963. 마을문고의 설립과 활용: 3000 원짜리 마을도서관 운동. 『地方行政』, 12(111): 104-109.
- 엄대섭. 1966. 마을문고 활동. 『도서관』, 108: 14-15.
- 윤영대. 1984. 새마을 문고가 농촌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새마을 연구』, 3: 31-49.
- 이만수. 2006. 독서교육과 문고지도자의 역할. 『독서문화연구』, 5: 1-17.
- 이용남. 2000. 마을문고 운동의 초기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운동형성 배경에서부터 1967년까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4): 27-47.
- 이용남. 2002. 마을문고운동 추진 전략과 형태에 대한 분석적 고찰: 새마을운동 체제로의 통합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91-109.
- 이재희. 2008.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및 정책 전공.
- 임지혜. 2003. 『고려시대 왕실문고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전재봉. 1984. 새마을문고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1: 211-240.
- 정병창, 이진영. 1994. 서울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제1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1994년 12월. [경기: 경기대학교].
- 통계청 홈페이지. [online]. [인용 2011.6.25].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i/1/1/index.action>.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2011. 『도서관정보정책 기획단, 2011년 도서관 및 독서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황준호. 2006.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참고자료: 건축도면(작은도서관 총서: 1),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